

# 청소년의 자기통제, 대인불안 및 인터넷 중독이 메신저 몰입에 미치는 영향

소 현 하(명지대학교 석사) · 한 유 진(명지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메신저 몰입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관한 현황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메신저 몰입 척도를 개발하여 메신저 몰입척도의 하위요인을 강박적·금단적 사용, 사용통제의 어려움, 의존적 성향으로 나누어 상대적 영향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자기통제, 대인불안, 인터넷 중독이 메신저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대인불안을 느끼고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 쉽게 중독되며 그 안에서 좀 더 교류를 나눌 수 있는 메신저에 쉽게 몰입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메신저 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Young(1998)의 온라인 중독 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제작한 20문항 5단계 Likert 척도로 된 인터넷 중독 척도를 장혜진(2000)이 휴대폰 중독 척도로 수정 보완한 척도와 메신저 중독 자가 진단 척도를 수정, 재구성하여 지도 교수와 아동학 박사 과정 1명으로부터 문항의 적합성을 검토 받아 메신저 몰입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메신저 몰입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총 592명을 대상으로 메신저 몰입 척도, 인터넷 중독 척도, 자기통제척도, 대인불안척도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메신저 몰입 정도를 살펴본 결과, 몰입 정도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중학교 2학년보다는 초등학교 6학년이 몰입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면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인터넷 중독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통제는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사려숙고성은 여아의 점수가, 중학교 2학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유혹저항은 남아의 점수가, 중학교 2학년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통제는 영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대인불안은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2학년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메신저 몰입에 대한 대인불안, 자기통제, 인터넷 중독의 상대적 영향력에서 일상생활장애, 교사관련통제, 가상적 대인관계, 대인불안 순으로 설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메신저 사용의 강박적·금단적 사용에 교사관련통제, 가상적 대인관계, 일상생활장애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메신저에 의존하는 성향에는 인터넷 중독의 금단적 현상, 교사와 관련된 상황에서 자기통제의 어려움, 대인관계에서의 불안, 그리고 가상적 대인관계의 지향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덟째, 메신저 사용에 있어 통제의 어려움에는 인터넷 중독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장애, 교사관련상황에서 자기통제의 어려움,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